

“2008년도 제3차 지역경제연구회”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충남발전연구원 공동 주최



2008년도 제3차 “지역경제연구회”가 2008. 7. 24(목)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부터 대전·충남지역의 경제를 중심으로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구성된 지역경제연구회는 충남지역 혁신협의회의 연구회 조직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두 가지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연구회 회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1주세 발표는 충남발전연구원 강영주 책임연구원의 “참여정부 지역 혁신 거버넌스 체계구축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 아래 참여정부 초기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마련되어진 지역혁신협의회들의 그간 활동 성과와 진단,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2주세 발표에는 한국은행 박창귀 과장의 “충남지역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충남의 경제상황에 대한 특징 파악, 발전방향 모색에 참석자들의 많은 고견이 제시되어 다시 한번 우리지역의 경제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된 자리였다.

“시군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설명회 및 시·군협의회 의장단 회의” 개최

- 유류유출 피해지역 갈등 예방과 사고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시급



행정안전부는 2004년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에 지역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토록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협의회의 역할 신장 도모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 9월부터 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 13일 충청남도 와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충청남도에 선

치되어 있는 13개 시·군협의회 의 수월한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공모사업설명회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시·군협의회 의장단 및 담당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군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지역 내에서 협의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시·군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은 9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오는 9월 5일 도 자체평가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에 3개 과제를 접수하게 된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군협의회에는 약 6,5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며 올해 12월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